

## ‘탐나는전’ 가맹점 절충 결과는...

농업인-소상공인, 지역화폐 하나로마트 사용 갈등도, 연매출 500억 이상 17곳 배제... 읍면점포는 허용 애월읍 주민들 어제 도청 향의 방문...“역차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제주도 동 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점포에 대해 등록 제외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도가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향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농업인단체와 소상공인단체간의 하나로마트 가맹점 가입 여부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도는 제주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 48개소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귀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7개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지역의 31개소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최명중 도일자리경제총상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수익성을 높이고, 제주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유통을 촉진시키는 측면과 읍면 소재 지역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내년 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했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지역화폐 발행목적 등을 살펴 불가피하게 일부만 등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200억원에 이어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탐나는전’의 올해 첫 발행시점은 오는 31일이며,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등 3가지 매체로 발행된다.

하지만 현재 오일시장이나 상설 전통재래시장의 경우 카드 사용이 안되며 가맹점 등록 여건 구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도는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탐나는전’ 사용에 앞서 가맹점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12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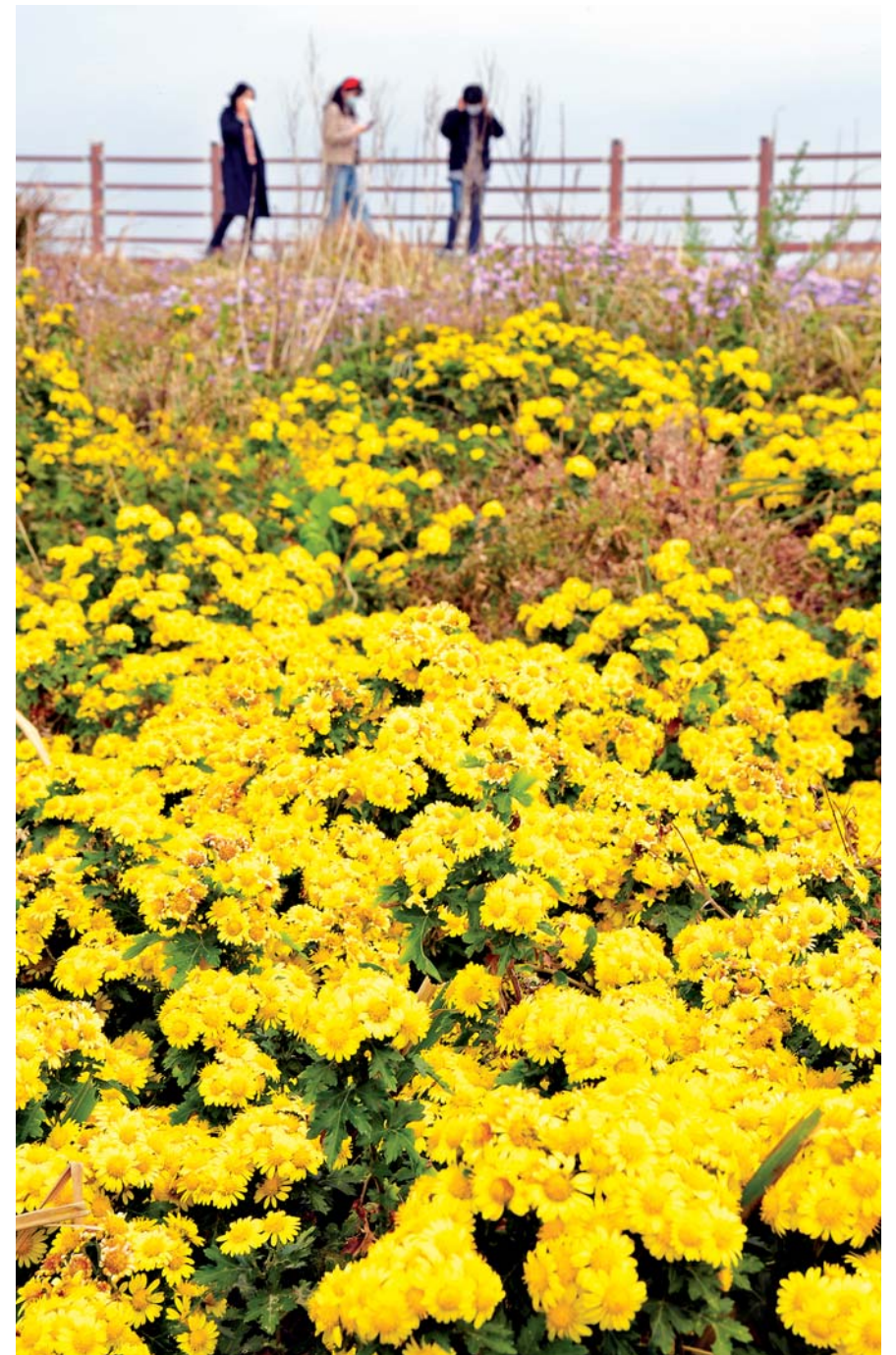
까지 이뤄지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도는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에 인력 65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제주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제주도상인연합회 등 관련 업체나 단체를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 등 제주농업계는 ‘탐나는전’ 사용처에 대해 하나로마트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주시 애월읍 전·현직 이장과 주민들은 도청을 향의 방문해 “하나로마트 배제는 역차별이며, 지역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가맹점 가입을 요구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깊어가는 가을 향기 1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 일대에 노란 들국화가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익어가는 제주의 가을향기를 한껏 전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상정

행안위 “희생자 배보상 명예회복 등 심의할 것”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상정돼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날 안건에 상정된 법안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과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총 46건이다.

두 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24번째, 25번째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고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제1소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 대해 전면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도, 개발공사 기부금 170억원 사각지대 사용

문화예술 10억·관광 25억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재해구호기금 200억원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로,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분야를 선정해 17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30억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25억원을, 유동인구 급

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일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원 ▶도내 청년(만 19~34세)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5000만원 ▶경마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사용 추진”

김경학 도의원 대표발의

도내 공공체육시설 사용자 장애인이 우선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6일 개최한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인구

는 2016년 3만4278명, 2017년 3만5104명, 2018년 3만5840명,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룬불림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검찰, 4·3 생존수형인 재심 ‘무죄’ 구형 ..... 4면

###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

## 2020. 11. 20.(금) ~ 21.(토) 2일간

### 서귀포 칠십리아외공연장(천지연광장 내)

※ 현장 공연별 관람인원은 70명으로 제한

**온라인 생중계**

▶ YouTube **서귀포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c/ChannelSeogwipo

▶ facebook **서귀포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gwiposicheong/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랜선으로 축제를 즐겨보세요!

**11. 20.(금)**

- 남극 노인성제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 칠십리 문화예술 한마당 (지역 공연 및 동아리 단체)
-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 (3분 관광영화제 입상작 및 제주어, 제주 유니티드 FC 홍보영상)
- 칠십리 문화예술 한마당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서귀포지회)
- 초청공연

**11. 21.(토)**

- 칠십리 문화예술 한마당 (지역 공연 및 동아리 단체)
- 초청공연
- 찾아가는 문화도시 105번 문화버스 (서귀포 노지문화 및 문화도시 이해하기)
- 칠십리 가요제 (서귀포문화원)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주관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문의 축제사무국 (064)760-3946